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도화지 위 한편에 그림물감을 바른 뒤 절반을 접었다가 떼어내면 색다른 채색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림의 대칭이 주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회화기법을 ‘데칼코마니’(Décalcomanie)라고 합니다. ‘복사하다, 전사(轉寫)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decalquer와 ‘편집’(偏執)이라는 뜻의 manie의 합성어입니다. 사진에서도 이러한 데칼코마니적 장면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잔잔한 호수와 강물에 비친 주변 풍경이 그것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속 호반(湖鰾)의 도시 춘천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두 눈을 빼앗깁니다.

글 전수영 기자

9월 8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에 파란 하늘과
둥게구름이 비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가을 행성'

가을비가 그친 9월 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논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김도훈 기자 [360도 카메라 촬영 후 편집]



떠나고 싶은 가을 하늘

9월 8일 몽개구름으로 가득한 경남 김해시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다.
김동민 기자



해바라기

9월 10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호로고루에서 해바라기 위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다.
임병식 기자





'안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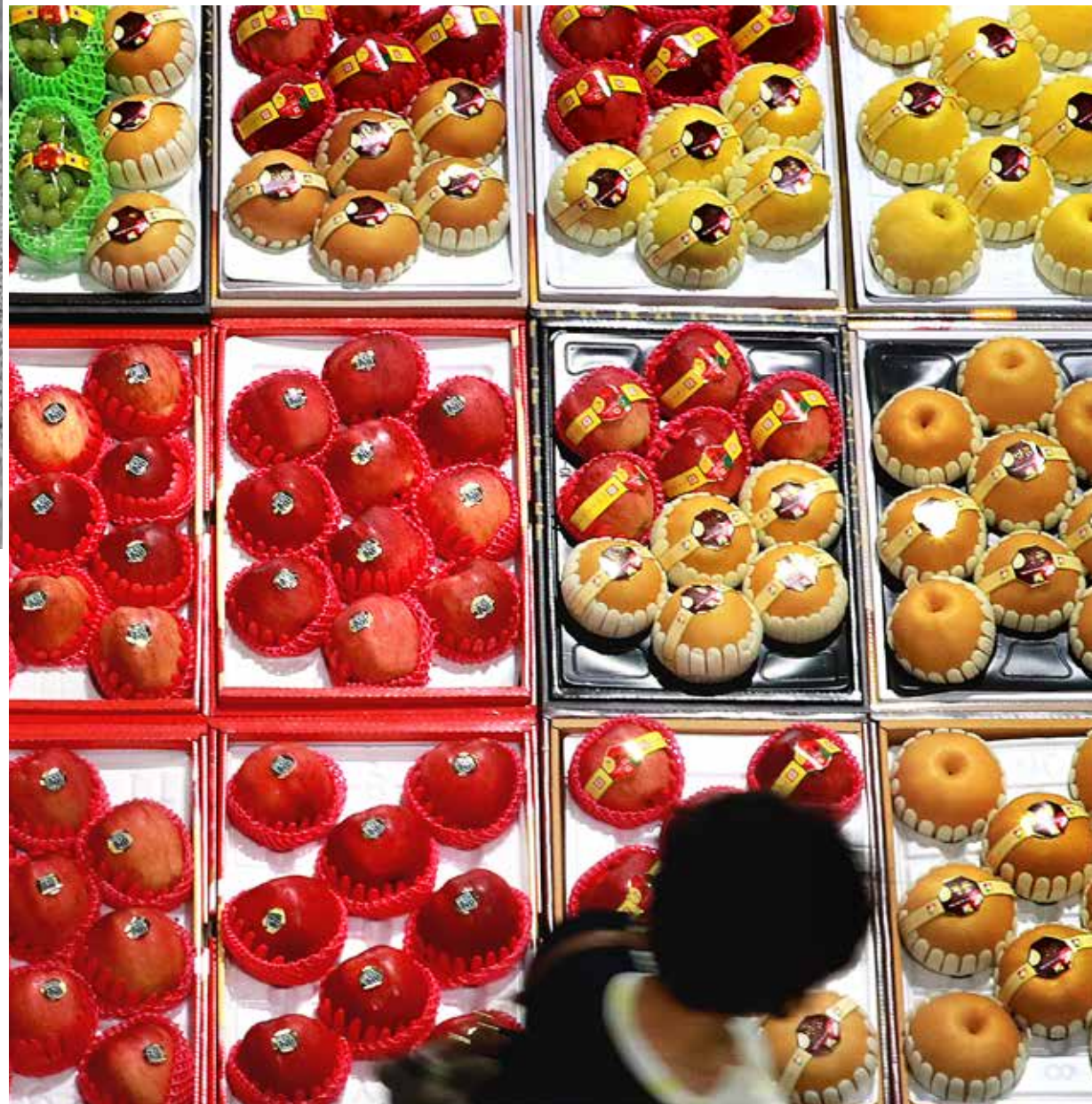
'한국 고양이의 날'인 9월 9일 서울 서초구 방아다리 근린공원에서 길고양이가 그루밍하고 있다.

신준희 기자

탐스러운 추석 과일

추석을 앞둔 9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손형주 기자



태풍 파도와 서퍼

가을 태풍 '찬투' 북상 소식이 알려진 9월 14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퍼가 파도를 타고 있다.

손형주 기자





귀성열차 소독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조차장역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무궁화 열차 객실을 소독하고 있다.

김준범 기자



비닐장갑 위로 느끼는 온기

추석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허용된 9월 15일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면회 온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있다. 해당 요양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18개월 만에 대면 면회가 허용됐다.

양지웅 기자



투명마스크 쓰고 수업

9월 13일 서울 종로구청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투명마스크를 쓰고 있다. 종로구는 이날부터 관내 어린이집 3곳에서 입이 보이는 '소통 마스크'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 학습 발달 지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어린이집 3곳의 영아(만 0~2세)반 담임교사와 원아들이다.

한상균 기자





인삼 수확

9월 13일 아침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서 주민들이 6년근 개성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

임병식 기자



울긋불긋

9월 9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원에 조성된 '고석정 꽃밭'이 울긋불긋 물들어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다.

양지웅 기자



노을 옷 갈아입은 서울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인 9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다.

황광모 기자

